

# 기관단총으로 미군 전투기를 격추시킨 인민군

라틴아메리카사회주의

선무방송을 하는 미군기가 날아갈 때마다 전사들은 손으로 쑥덕을 먹이곤 했다. 어느날인가 한 전사가 하늘에 대고 따발총을 쏘아 화풀이를 했는데, 생각지도 못하던 일이 생겼다.

"쌩! 양키 아새끼래! 내 총알맛을 보라우요!"

그 전사는 미군에 대한 증오가 너무도 강해 무서운 투혼으로 자신의 몸을 염폐할 생각도 않고 아예 선 자세로 따발총을 갈겨댔다. 현대 우연히 그가 쏜 총알이 비행기 연료통에 맞아 미군기가 떨어졌던 것이다. 그 전사 때문에 이후 각 부대에는 '비행기 사냥꾼 조'가 생겼다. 전사들은 산꼭대기에 올라가 매복했다가 비행기를 맞춰 떨어뜨리면 계급이 올라가고 훈장도 수여받았다. 이후로 전사들은 비행기만 보았다 하면 따발총 사격을 하곤 했다.

출처: 조국 어느 북조선 인민의 수기(상) p.165